

## 근대 초기 한중일 번역문학의 상호텍스트성\*

### - 한중일 『십오소년표류기』의 번역을 중심으로

이시활\*\*

#### 【목 차】

1. 들어가면서: 동아시아 근대에서의 번역의 의미
2. 근대 초기의 한중일 서구문학 번역 수용양상
3. 한중일 『십오소호걸』의 번역의 태도와 지향 및 상호텍스트성
4. 나오면서: 근대적 문체의 문제

#### 【초록】

이 논문은 근대 초기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번역된 텍스트 중의 하나인 쥘 베른의 1888년 작 『십오소년표류기』의 한중일 번역본, 즉 1912년 민준호의 『십오소호걸』과 1902년 량치차오의 『십오소호걸』 및 1896년 모리타 시켄의 『십오소년』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한중일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환경 아래에서 번역자에 번역 방법과 의도를 통해 번역과정에서 개입과 전복, 변형과 왜곡 등이 발생하는 과정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한중일 각국의 문체변화의 과정의 일면을 시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민준호 한국어 번역본은 서구 소설의 번역에 단순히 목적에 있기보다는 번역, 즉 엄밀한 의미에서 역술을 통해 모험에 익숙치 않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야기의 신기함을 제공하였다. 량치차오의 『십오소호걸』은 ‘신민’ 만들기라는 정치적 프로젝트에 우선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장회소설의 형식을 사용하여 번역하여 이야기꾼으로 설정된 서술자가 해석과 설명으로 작품에 끊임없이 관여하고 있다. 모리타 시켄은 한문체와 화한훈호체를 뛰어넘어 출발어의 영어 원문 텍스트의 언어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905)

\*\* 이시활, 경북대학교 비정규교수 (sihlee@hanmail.net)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여 근대국가로서의 일본의 언론 일치제 문장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키워드】 민준호, 량치차오, 모리타 시켄, 2년간의 휴가, 십오소호걸, 십오소년

## 1. 들어가면서: 동아시아 근대에서 번역의 의미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의 근대 수용과정에서 번역은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동아시아 근대 형성기의 번역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맞게 적용되어 서구 근대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또 근대 민족국가로서 한중일 각국의 ‘국어’로 발전하는 언론일치의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

번역이야말로 한 나라의 문화형성에 관여하는 언어문화적 힘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국의 문화형성에 관여하는 번역은 모든 시대에 걸쳐 해당되지만,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근대라는 미지의 새로운 타자의 문물과 접촉한 근대 형성기 시대에는 우리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대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은 1860년대부터 서구 열강의 침탈과정에서 번역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한 근대의 다양한 개념과 서구의 풍경을 동아시아의 공통언어인 한자를 사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지닌 한자어의 번역 언어로 변용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근대를 창출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른바 ‘번역된 근대’라는 말이 있듯이 번역이란 열쇠가 없었다면,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근대의 거대한 대문을 열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번역문학은 단지 서구의 사상을 수용하는 단순한 지적행위가 아니라 번역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구의 근대적인 타자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문화적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의 근대 수용과정에서 번역문학은 서구문명을 이해하고, 근대를 기획하기 위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서구의 문학작품 중에 근대 초기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번역된 텍스트 중의 하나인 쥘 베른(Jules Verne, 1828-1905)의 『십오소년표류기(원제: 2년간의 휴가, Deux ans de vacances, 1888년 발표)』<sup>1)</sup>를 중심으로 삼아 서구 문학작품 번역 텍스트의 생산과 문화적 수용과 관련한 상호성을 살펴보고 한다.

1) 한국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필독서로 『십오소년표류기』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제목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십오소년표류기』로 명명하고, 한중일의 번역서는 각각 그 번역서의 원제목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근대 공상과학소설의 선구자인 쥘 베른의 작품들은 19세기 서구 사회에서 근대 과학 문명과 인류 진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서구 사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따라서 『십오소년표류기』에서 표류했던 무인도에 식민지 건설이라는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보이지만, 새로운 과학 문명에 대한 기이함과 상상을 초월하는 미지의 세계로의 모험이라는 쥘 베른의 소설 서사는 서구 근대화에 뒤쳐졌던 한중일에서 공히 번역되어 그 시대에 추구해야 할 근대적 이상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인식되었다.<sup>2)</sup> 『십오소년표류기』는 원래 제목은 『이년간의 휴가(Deux ans de vacances)』이고 30회로 이루어져 1888년 발표된 작품인 바, 그 이듬해부터 영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1896년 메이지시대 번역왕으로 불리워졌던 모리타 시켄(森田思軒)이 영어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아 중역하였다. 당시 일본 최대의 출판사인 박문관(博文館)에서 운영하던 소년용 종합잡지인 「소년세계少年世界」<sup>3)</sup>에 15회로 구성하여 「모험기담 십오소년(冒險奇談 十五少年)」이란 제목으로 연재되었다가, 그 해 12월 박문관에서 『십오소년』이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sup>4)</sup>되었다. 일본에서 처음 소년용 종합잡지에 연재되었기 때문에 『이년간의 휴

2) 한국에서는 1907년 일본 유학생 박용희가 쥘 베른의 『해저 2만리(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 1870년 발표)』를 일본어 중역본을 참조로 한국 실정에 맞추어 번안하여 『해저여행기담』이란 제목으로 일부 발표하였고, 1908년 이해조가 『인도 왕비의 유산(Cinq Cents Millions de la Be'gum, 1879년 발표)』을 계몽소설적 내용으로 번안하여 『철세계』라는 단편으로 번안하였다.

3) 「소년세계(少年世界)」는 청일전쟁의 승리가 보이던 시점인 1895년(메이지 28년) 1월에 창간하여 1933년(쇼와 8년)까지 하쿠분칸(博文館)이 출판한 소년용 종합 잡지이다. 한국의 최남선, 방정환 등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근대 일본 아동문학의 창시자인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를 주필로 하여 발행되었다. 독일어에 능통했던 이와야 사자나미는 「소년세계」에 일본의 어린이에게 한국의 전래동화를 처음 소개하였던 인물이기도 하였다. (오오다케키요미(Otake Kiyomi),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와 근대 한국」, 한국아동문학연구 15권, pp.149-167, 2008. 참조)

4)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 번역본의 출판 상태는 최근에 나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세련되었다. 이는 그 당시 서구의 기술, 설비, 기계, 경제 제도 등을 도입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근대적인 산업을 일으키려는 일본의 식산흥업의 정책의 성공으로 인한 선진적인 생산기술의 단면을 알 수 있다. 모리타 시켄의 『십오소년』 단행본은 번역된 본문만 292쪽에 이르는데, 불어 원문의 절반 정도만 번역된 것으로 추정되고, 30회인 원문의 2회 분량을 1회로 압축하였다. 이는 모리타 시켄이 영어본에서 번역했기에 그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십오소년』 단행본 앞머리 일러두기에서 3개의 사항을 언급하였다. 1)프랑스 쥘 베른의 『이년간의 학교휴가』의 영역본에서 중역하였고, 2)번역방법으로 사역(詞譯)은 버리고 의역(義譯)을 취해서 ‘의미의 전달(達意)’을 중심으로 하고 글을 다듬고 꾸며서 아름답게 하는 수사(修辭)는 부차적인 것으로 하였고, 3)책에 들어 있는 많은 삽화들은 많이 고민이 되는 바, 내가 원서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화공의 생각에 맡긴 것이 역시 한 두 개가 된다고 하였다. 모리타 시켄(森田思軒), 『십오소년』, 博文館, 1896, 일러두기 참조. 본 연구자가 본문에서 일일이 찾아본 삽화는 총 32개이고, 또 표지 제목에 등장인물 삽화가 10장이 한 페이지에 있고, 책 마지막에 등장인물 삽화가 5장이 한 페이지에 있다. 총 등장인물 15명이 삽화로 그려진 것이다. 그림으로 보여주기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 표지 삽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텍스트는 이 박문관의 것으로 삼는다. 반면에 민준호 한국어 번역본의 표지에 신소설의 그림을 많이 그린 이도영(1884-1934)의 삽화 하나가 유일하게 있다. 그 삽화는 더 넓은 바다 위의 범선에서

가』를 잡지 성격에 맞게 『십오소년』으로 탈바꿈하였던 것이다.

이 당시에 근대지향을 갈망했던 한중일에서 ‘소년’이라는 말은 새로운 근대 사회를 건설하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동아시아에서는 미래의 새 사회를 향해 시련에 굴하지 않는 도전과 진취의 자세를 ‘소년’이라는 상징물에게 기탁하였던 것이다. ‘십오소년’으로 명명하였던 것은 동양적 근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그 후 일본에서 어린이용 축약본 형태로 많이 출판되었고, 후일 한국에 영향을 주어 소년용 읽을거리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쥘 베른 컬렉션으로 번역된 『15소년표류기』의 번역량은 단행본 6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영어본을 저본으로 삼아 일본에서 번역된 『십오소년』을 량치차오가 중역하면서 『십오소호걸(十五小豪傑)』로 중국어 제목을 바꾸었고 18회로 구성하였고, 1902년 『신민총보新民叢報』 제2호부터 제24호까지 연재하였다. 량치차오는 중국 전통의 익숙한 문체와 문화로 번역하는 장회소설의 방법, 즉 귀화(歸化, Alienation)의 방법으로 번역하여 18회 연재되었다. 전체 분량은 일본어 번역본보다 적다. 앞의 9회는 「소년중국설」 끝에서 스스로 명명한 ‘소년중국지소년(少年中國之少年)’이라는 역자의 이름으로 량치차오가 호걸처럼 통쾌하게 붓을 휘둘러 원작에 침삭을 가하는 ‘호걸역’<sup>6)</sup>으로 번역하였고, 뒤에 9회는 ‘피발생披髮生’이라는 역자로 뤼푸(羅普)가 량치차오 대신 번역하였다. 앞에 9회는 “지금 천하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그 퇴보의 속도와 위험의 극렬함이 우리 중국만한 나라가 없다(夫今日天下萬國中, 其退步之速與險象之劇者, 莫吾中國若也.)”<sup>7)</sup>는 자기 반성에서 출발하여 진취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중국을 지향하려는 량치차오의 뚜렷한 목표

연기가 나오는 것으로 근대문명의 상징으로 그려져 있다. 또 신민총보의 중국어 번역본에는 4회, 5회, 7회, 8회, 17회, 18회의 마지막 부분에 간혹 삽화가 나오는데, 총 6장이다. 대부분 서사와 전혀 관련없는 매화나 보름달 그림 같은 동양화같은 삽화이다. 17회 끝의 기차가는 장면, 18회 끝에 서양인들이 트럼펫을 불면서 행진하는 삽화가 색다르다고 하겠다.

- 5) 한국의 최남선은 1908년 『소년』 창간호에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한국 최초의 현대시를 발표하여 서구 근대의 신문화의 수용의 책임자는 소년이고 이를 통해 힘 있고 활기에 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사회진화론과 맞물려 소년은 진보라는 상징의미가 만연하였다. 근대의 최고 사상가인 량치차오(梁啟超)는 1900년 「소년중국설(少年中國說)」을 지어 소년의 생기발랄함과 씩씩함을 극히 찬송하였는 바, 그는 봉건통치하의 중국을 ‘늙은 제국’이라 하였고 조만간에 ‘소년 중국’이 도래할 것을 희망하였다.
- 6) ‘호걸역’은 일본의 메이지 초기에 출현하였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서구를 학습하면서 많은 서구의 문학작품이 번역되었는데, 당시 번역은 원작의 주제, 구조, 인물 등을 바꾸는 등 요약과 다시 쓰기를 한 작품이 많았다. 이런 번역방식을 ‘호걸역’이라고 하는 바, 스스로 호걸이라 지칭하고 통쾌하게 붓을 휘둘러 제멋대로 원작을 잘라내고 훼손시킨다는 의미이다. 또 중국에서는 만청시기에 ‘호걸역’이 성행하였다. 그 당시 林紓, 梁啟超, 蘇曼殊, 周桂笙, 包天笑 및 魯迅 초기의 번역 등이 다 ‘호걸역’이라 말할 수 있다. 즉 ‘호걸역’은 원작에 대해 손을 대어 침삭, 생략, 증감, 대체, 개역 등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왕원향, 『翻譯文學導論』,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4. p.146. 참조. 이는 한중일 서구문학 번역 초기에 번역 원작에 대한 불철저성에서 기인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 7) 량치차오, 「論進取冒險」, 『신민총보』 제5호, 1902년 4월 8일.

의식이 보이지만, 뒤에 9회는 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번역한 것에 불과하여 이야기의 신기함과 참신성만 제공했을 뿐이다. 한국에서의 번역은 1912년 2월 민준호(閔濬鎬)가 중국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십오소호걸』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여 동양서원(東洋書院)에서 발간하였다. 한국어 번역본 『십오소호걸』은 중국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표지 앞에 모험소설이라는 관형어를 붙여 『모험소설 십오소호걸』이라 명명하여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모험적 요소를 강조하였고, 쥘 베른의 30회, 모리타 시켄의 15회, 랑치차오의 16회의 구분은 따르지 않고 회 구분없이 전체를 하나로 엮었다. 단행본은 154쪽으로 일본어 번역본과 중국어 번역본보다 분량이 훨씬 적었다.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 번역본의 일러두기와 랑치차오의 중국어 번역본의 주와 같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일체의 설명이 없어서 누구의 책을 번역하였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지만, 개화기시대 서구소설의 한국수용처럼 랑치차오의 중국어 번역본을 뼈대로 삼아 번역하였고 모리타 시켄의 번역본을 참조하여 번역한 것이다.

한편,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관계, 두 개 이상의 텍스트가 맺고 있는 상호연관성을 상호텍스트성이라 말하는 바, 한 텍스트의 의미가 다른 텍스트 관련 속에서 상호 텍스트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상호텍스트라는 것은 가장 넓은 의미의 범주로서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다른 문화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근대를 지향하면서 서구 작품을 번역하는 한중일의 사회와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문학과는 상호텍스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번역은 원어 텍스트와 문화에 대한 ‘다시 쓰기(rewriting)’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쓰기’ 과정에서 한중일 번역자의 전략적 의도와 각국의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과 개입, 변형과 왜곡, 전복과 조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번역을 통해 무단하게 변화하는 것은 언어의 표현형식의 변화일뿐만 아니라 서구 근대를 지향하는 사회적 열망의 요구이다. 본고는 『십오소년표류기』를 통해 한중일 각국의 문화적 환경 아래에서 번역자에 번역 방법과 의도를 통해 번역과정에서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과정에서 개입과 전복, 변형과 왜곡 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탐구하고, 근대 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각국의 새로운 국어로 탄생하는 과정의 일면을 초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2. 근대 초기의 한중일 서구문학 번역 수용양상

한국에서는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를 통해 서구 근대가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새로운 제국으로 성장하던 일본이 운요호사건(1875)을 통해 불평등한 강화도조약(1876)을 통해 강제적으로 개항하는 시기까지 서구 근대를 알기 위한 번역은 전무하였다. 새로운 근대의 문화를 건설하고자 욕망했던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일본의 이노우에 츠토무(井上勤, 1850-1928)이 1883년 번역한 『아라비안나이트』를 번역 저본으로 삼아 1895년 전통고전소설의 문체로 번안하여 번역한 『유옥역전』을 필두로, 같은 해에 청교도들의 신앙과 신학을 비유형식으로 그린 존 버니언(John Bunyan, 1628-1688)의 소설인 『천로역정(天路歷程, The Pilgrim's Progress)』을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 목사가 한국어로 발췌하여 번역한 『턴로력당』이 출판되었고, 1886년 『이슈이히기』가 일본번역본을 참조로 발췌하여 번역되면서 서구문학의 번역작품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900년까지 한국에서 서구문학 작품이 번역된 것은 이 세 종이 전부이고 1910년도까지 번역된 것은 거의 일본어 번역본이거나 중국어 번역본을 중역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sup>8)</sup> 한국에서는 새로운 근대를 향한 번역작업의 중요성과 근대의 민족 언어 만들기로서의 의식적인 자각이 부족하였던 셈이다.

중국에서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1911년 신해혁명까지의 소위 청말 혹은 만청시대에 중국정신이라는 봉건적 전통가치는 보전하려는 욕망 속에 근대화를 추구하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중국 지식인들은 서구문학의 번역 소개 등으로부터 부국강병을 도모하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교를 목적으로 영국 선교사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 1815-1868)가 『천로역정(天路歷程)』을 1953년 중국어로 번역한 이후에, 1872년 상하이에서 창간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중국현대사 연구의 백과전서라 불리던 신문 『신보(申報)』에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여행기(Gulliver's Travels)』가 그 해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담영소록(談瀛小錄)』이라는 제목으로 나흘간 일부 연재되다 중단된 적이 있다. 이 『담영소록』은 걸리버여행기 속의 인물이 중국인으로 바뀌고 난쟁이 나라 소인국만을 간단하게 서술한 번안물이었다. 이어서 1873년 영국 작가인 에드워드 조지 불워 리튼(Edward George Bulwer Lytton, 1803-1873)의 소설 『밤과 아침(Night and Morning)(1841년 작)』을 여작거사(蠶勺居士)가 『흔석한담(昕夕閑談)』이란 제목으로 번역하여 『신보』가 발행한 중국 최초의 통속성을 중시하는 문학잡지인 『영환쇄기(瀛寰瑣記)』 제3기부터 28기까지 전통의 장편 장회체 소설문체로 발표하였다.<sup>9)</sup> 하지만 중국에서 서구문학을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한

8) 한국에서 서구 근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저작물이 소개된 것은 「한성순보(漢城旬報)」(1883), 「한성주보(漢城周報)」(1886) 등의 신문의 발간과 한국 최초의 근대화 책략서라 할 수 있는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이 간행되고 난 다음부터이다. 김병철 저,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 을유문화사, 1980, pp.7-76. 참조.

9) <https://wenhui.whb.cn/third/baidu/201907/08/275551.html> [2022.10.10.] 및 Patrick Hanan, “A

것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이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중국이 서구 제국이나 메이지유신을 통해 새로운 근대 제국으로 성장한 일본에 비해 과학기술의 물리력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 문화의 차원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면서 서구의 근대를 탄생시킨 수많은 저작들을 본격적으로 중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었다. 이 시기 중국에서 서구의 사상서이나 문학 작품의 번역종수가 이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sup>10)</sup> 서양 유학생 출신인 엄복(嚴復)은 『천연론(天演論, Ethics and Evolution, 1897년 『國聞彙報』에 연재됨)』 등 서구 사상서를 신·달·아(信·達·雅)라는 자신의 독창적인 번역관을 확립시키면서 문언문으로 번역하였고, 임서(林紓, 1852-1924)는 중국 최초의 서구 번역소설로 잘못 알려졌던 『파리차화녀유사(巴黎茶花女遺事, 1895)』를 비롯하여 『흑노유천론(黑奴籲天錄, 영클 톰스 캐빈, 1901), 『해외헌渠錄(海外軒渠錄, 걸리버여행기, 1903년부터 『수상소설(繡像小說)』에 연재되고 1906년 출판됨) 등 180여 종의 문학작품을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구술의 도움을 받아 뛰어난 문언문으로 번역하였다. 특히 쥘 베른의 작품은 중국의 근대 초기에 가장 많이 번역된 서구 작가의 하나로 『십오소년호걸』이 번역되고 난 다음부터 중국 근대 최초의 백화소설 『광인일기』가 나오기 전까지 총 19종의 쥘 베른의 작품이 일본어본 중역을 참조하여 중국 전통의 형식과 문체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1907년도에 250여종이 나올 정도로 서구문학 번역종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5·4시기 이전까지 중국에서의 번역 행위는 늙은 중국의 제국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 중국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애국적 열정에 따른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닌 바, 새로운 근대적 언어와 문체에 대한 자의식은 부족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한중일에서 번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동아시아 근대의 제국으로 성장했던 일본이었다. 일본은 에도막부 시대에 난학(蘭學)의 최초의 학자 스기다 겐파쿠(杉田玄白)가 일본 한문체로 『해체신서(解體信書)』를 완역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어휘를 동아시아 문명의 공통언

*Study in Acculturation-The First Novels Translated into Chinese*,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CLEAR), Vol. 23, Dec., 2001, pp.55~60.참조

10) 郭延礼는 『中国近代翻譯文学概論』(湖北教育出版社, 1998)에서 중국 근대의 50년간의 번역문학을 50년간의 번역문학사를 망아기(1870-1894년), 발전기(1895-1906년), 번성기(1907-1919년)로 나누고 있다. 일본의 樽本照雄의 「清末民初の翻譯小説」(『大阪経大論集』第47卷 第1号, 大阪経大学会)의 분석을 참조해보면, 1901년부터 번역소설의 종수가 눈에 보이게 서서히 증가하여 1903년에 하나의 정점을 맞이한 뒤, 1907년에는 250여 종이 나올 정도로 1903년의 발행 종수의 3배에 가까운 작품이 출판되어 최정점을 맞이한다. 그러나 1907년을 경계로 그 후 번역작품의 종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가 중화민국이 성립되고 난 뒤에 번역소설의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1915년 신문화운동에 발맞추어 번역소설의 종수는 청말의 최절정기인 1907년의 숫자를 훌쩍 넘어서는 350여 종 이상이 발간되었다. 그 후 점차 줄어들어 1928년까지 1915년과 1907년을 최정점을 초과하지 못하였다.

어인 한자어로 재창조한 이후에 서구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중국처럼 일본에서도 미국의 매튜 페리가 근대식 군함을 몰고 개항을 강요하여 1895년 불평등한 조약인 미·일수호통상조약을 맺고 강제적인 개항 이후, 근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슬로건으로 서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메이지시대에 서구 언어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서구 개념에 대한 번역어들을 고민하면서, 근대를 상징하는 수많은 번역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개인, 사회, 민주, 민족, 철학, 주의, 논리, 의식, 의지, 문명, 사회, 공산, 자본, 이성 등 현재 한중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근대 어휘가 한중일 공통의 서면 언어인 한자를 매개로 하여 번역을 통해서 출현하게 되었다. 그 한자어 번역어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또한 한자의 중주국인 중국에 수용되었던 것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 번역의 근대적 어휘의 유입은 한국과 중국에서 새로운 근대의 개념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서구 근대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 번역을 통해 만들어낸 근대 어휘가 없었더라면 한국과 중국에서 국어의 탄생, 즉 언문일치의 완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일본 메이지시대 이전에 서구 문학이 번역 소개된 것은 『이솝 이야기』와 『로빈슨 크루소』이다. 일본 최초의 서구문학 번역본인 『이솝 이야기』는 1857년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일본에 왔던 예수회 선교사 알렉산드로 발리냐노에 의해 라틴어본을 저본으로 삼아 『이솝의 파블라스イソポのハブラス(ESOPO NO FABVLAS)』로 일본어 구어체로 번역되어 로마자 표기로 출판되었다.<sup>11)</sup> 대니엘 디포가 1719년 발표한 장편 소설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는 네덜란드어, 영어, 불어, 독어에 능통했던 구로다 유키지로(黒田行次郎, 1827-1892)<sup>12)</sup>가 1854년 네덜란드 번역본을 저본삼아 로빈슨 크루소를 사무라이의 아들로 만들어서 일본어로 발췌하여 필사본으로 번역한 『표항기사漂荒紀事(ロビンソン・クルーソー)』가 있고, 요코야마 요시키요(横山由清, 1826-1879)가 1857년에 발췌번역하고 3점의 목판 삽화를 삽입한 『로빈슨표항기략(魯敏遜漂行紀略)』가 있고, 1872년 메이지 5년에 사이토 료안(齋藤了庵)이 『로빈슨전전

11) 이 책은 그 당시 쇄국의 시대적 상황에서 발금조치 되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지 않았다. 이 책이 전세계에서 유일본으로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메이지 시대가 되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에도시대(1603-1868) 초기부터 1639년까지 『이솝이야기 伊曾保物語』 일본어 문어체로 번역된 9종의 고활자본이 있었고, 1659년 삽화들이 들어가 있는 제판본도 나와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濱田幸子, 「『伊曾保物語』と江戸時代におけるその受容について」, 『佛敎大学大学院紀要, 文学研究科篇』第38號, 2010년 3월, p.57. 참조.

12) 난학자(蘭學者)인 구로다 유키지로는 천문·역학으로부터 정치·종교에 이르는 110여 종에 관하여 저술하였고, 또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을 주해·주석하여 후쿠자와 유키치조차도 감탄시켰다. 에도 말기부터 시작하여 메이지 유신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던 서구 문명의 수용과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魯敏孫全傳)』의 제목으로 발췌번역하였다. 『로빈슨 크루소』는 메이지 시대에 특히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1912년까지 『로빈슨 크루소』는 13종이 넘는 다양한 형태로 일본어로 번역출판되었다. 이처럼 『로빈슨 크루소』, 『걸리버여행기』, 『십오소년표류기』, 『월세계여행』, 『80일간 세계일주』 등과 같은 모험과학소설류는 메이지 시대에서 구 근대를 따라잡기 위해, 현실의 삶의 역경을 굴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면서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근대의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했던 일본인들의 도전과 개척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이 지점에서 메이지 시기의 서구문학 일본어 번역상황을 살펴보자. 2001년에 출판된 川戸道昭 등이 편집한 『明治期翻訳文学総合年表』에서는 메이지 원년(1868)부터 메이지 45년(1912)까지 간행된 서구문학 번역작품은 총 4,509종이었고, 나라별로는 영국(1,115종), 프랑스(859종), 러시아(756종), 독일(536종), 미국(425종) 등의 순서로 번역되었다. 일본의 메이지 시기는 서구문학번역을 통해 서구를 철저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메이지 시대 메이지 시기(1868-1912) 최초의 10년간 번역작품은 적어서 매년 나오는 번역작품은 거의 한자리수에 머물지만, 메이지 11년(1878)을 기점으로 간행되는 서구 번역문학의 작품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메이지 20년(1887)년에 100종이 넘는 정도로 하나의 피크에 이르고 있다. 메이지 20(1887) 이후 매년 30여종에서 100여 종까지 번역되다가, 메이지 35년(1902)에는 350여 종 정도 서구작품이 번역되어 최절정기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년 거의 300여 종을 넘을 정도로 간행되어 절정에 이르다가 메이지 45년(1912)에 200여종 이 번역되어 서구문학 번역추세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sup>13)</sup> 메이지 시대의 번역은 서구 근대의 신지식과 사상을 전달하는 캐리어가 되어, 일본이라는 국가와 민족과 개인의 측면에서 아이덴티티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였다. 언어사용의 방면에서도 한문으로 사용한 동아시아의 문언 중심의 전통적인 가치에서 근대민족국가의 국어로 전환하는 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었다. 이로 인해 메이지 말에는 벌써 서구문학의 번역을 통해 근대국가로서의 언문일치라는 일본의 근대 국어를 탄생시켰으며 구어 중심의 문체가 완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1887년 『부운(浮雲)』을 발표해 일본의 언문일치소설의 선구자가 되었던 후타바테 이 시메이(三葉亭四迷)는 한학과 러시아문학에 능통한 번역가로서 러시아어로 소설을 쓰고 그것을 일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근대적 언어와 문체를 재발견하였다. 후타바테 이 시메이는 1888년 지식인들의 종합잡지였던 『국민의벗(國民之友)』에 1988년 이반 투르게네프의 『사냥꾼일기』를 일부 번역한 「밀회(あひびき)」를 발표하였

13) 川戸道昭 等(編), 『明治期翻訳文学総合年表』, 2001년, 大空社. 와 王 虹, 「データから見る清末民初と明治の翻訳文学」, 『多元文化』 第7號, 2007년, pp. 151-165참조.

는 바, 그전까지 일본한문체로 대중의 전체 줄거리를 축약하거나 요약하는 번역방법에서 벗어나 투르게네프의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씩 엄밀하게 직역하는 방법을 통해 일본의 언문일치체의 선구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일본 한문체의 문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구의 표현을 모방하기 위해 서구식 문장기호의 사용, 일본어 어법에서 이탈한 참신한 문학적 예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서구식의 표현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었기에 쓰보우치 소요(坪内逍遙, 1859-1935) 등을 비롯한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새로운 일본어를 탄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번역을 통해 근대문체의 탄생을 알려던 것이다. 번역이란 어떤 문화에서의 개념을 언어적 차원에서 변용하여 이질의 다른 문화에서도 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어떤 문화와 다른 문화가 통하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시대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번역을 넘어서 서구 근대에 대한 철저한 수용과 모방을 통해 동아시아 근대의 제국을 실천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어와 문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철저한 시도였던 셈이다. 따라서 일본의 근대 문학사는 서구문학의 전통을 번역을 통해 일본화하려는 서구 문학의 영향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바, 『십오소년』을 비롯한 모리타 시켄의 번역작업도 서구의 사상과 문화의 다시 쓰기를 통해 서구 근대를 철저히 모방하고 근대국가로서 일본의 국어를 건설하고자 하는 핵심 작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 3. 한중일 『십오소호걸』의 번역의 태도와 지향, 상호텍스트성

이 지점에서 『십오소년표류기』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성서를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로 알려져 있는 쥘 베른의 『십오소년표류기』의 원제목은 『2년간의 휴가』이다. 1860년 3월 뉴질랜드 체어맨 스쿨의 학생 14명이 배를 타고 뉴질랜드 연안을 일주할 희망에 부푼 계획을 세우지만, 출항 전날 선장과 선원들이 없는 사이에 묶어둔 밧줄이 풀리면서 학생들을 태운 배가 망망대해 바다로 떠내려 가버린다. 그 배에는 학생 또래의 미성년의 흑인 견습선원인 모코만이 타고 있을 뿐이다. 15명의 소년들이 바다에 폭풍우를 만나 2주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간신히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다. 그곳에서 15명의 소년들은 자신의 학교 이름을 따서 체어맨 섬이라 명명하고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뽑아 생활한다. 이 과정에서 15명의 소년들은 과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사물에 대한 관찰력을 키우고, 다양한 시련과 갈등을 돌파해나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는다. 어려움을 만나면 용기를 발휘하고 합심단결하는 협동의 자세를 가지면서 각자 자립심을 키우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이처럼 소설의 주요 서사는 그들이 2년간 체어맨 섬에 살다가 간신히 구조되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모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서구제도와 문명을 수입하는 ‘문명개화’와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식산흥업’으로 상징되는 서구 근대화를 통해 청일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고 탈아입구를 외치면서 동아시아 제국으로 성장하던 시기인 1896년에 모리타 시켄은 『십오소년표류기』를 번역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양무운동의 실패와 변법유신의 좌절, 의화단의 난을 진압한다는 구실로 8개국 연합군이 중국에 진출하여 굴욕적인 ‘베이징의정서’를 체결하여 반식민지·반봉건 사회로 전락한 민족멸망의 시기에 량치차오는 ‘신민(新民)’ 만들기라는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1902년 번역하였고, 한국에서는 서구 근대화를 제대로 추구하지도 못하고 한일합방을 통해 완전히 일본 식민지 상태로 떨어진 시기인 1912년에 민준호가 번역하였다. 이런 까닭에 한중일 번역자의 사회문화적 시대환경에 따른 번역정신과 태도에 따라 한중일 『십오소년표류기』의 텍스트의 변형과 왜곡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쥘 베른의 『십오소년표류기』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번역된 일본에서는 모리타 시켄(森田思軒)이 영어의 어떤 판본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어본에서 중역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량치차오는 모리타 시켄의 일어본에서 중역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4)</sup>

14) 모리타 시켄은 ‘서유기’, ‘삼국지’, ‘수호전’ 등의 중국소설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었으며, 14살 때 오사카 게이오 의숙에 입학하면서 영어를 공부하였다. 한마디로 일본에서 청소년 시절 영어를 공부한 최초의 세대로, 메이지 초기의 번역 문제의 혁신과 언문일치체의 확립과 완성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의 번역 문제는 원문에 충실한 ‘주밀체(周密體)’이다. 이는 번역자의 정확한 외국어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는 바, 그의 번역목표는 번역을 할 때 번역어의 정확함을 강구하는 한 편, 구두점의 위치까지도 원문에 맞게끔 신경쓰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십오소년표류기』에 다룬 유일한 글로 시에구사 도시카쓰의 「쥘 베른(Jules Verne)의 『십오소호걸』의 번역 계보-문화의 수용과 변용」(사이間SAI·제4호)이라는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십오소호걸』의 1차적인 서지 자료 분석과 한중일 작품에 대한 간단한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으나, 모리타 시켄은 뉴욕(New York)에서 1889년 대중용 해적판으로서 포켓판의 단행본의 형식으로 출판한 A Two Years' Vacation(Seaside Library Pocket Edition)을 원본 텍스트로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또 민준호의 『십오소호걸』은 소설 등장인물의 이름표기가 아돈, 파사타, 좌극, 격라사, 을보, 사비 등의 이름은 일본어 한자표기와 다르고, 중국어 량치차오의 번역본의 俄敦, 巴士他, 佐克, 格羅士, 乙菩, 沙毗 등과 같은 점을 들어서 민준호의 『십오소호걸』은 량치차오의 번역본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번역본의 한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아돈, 파사타, 좌극, 격라사, 을보, 사비 등 차용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량치차오의 판본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번역계보는 불어원전→영어판→일본어판→중국어판→한국어판이라고 밝히고 있다. pp.36.-40. 참조. 하지만 민준호의 한국어판은 중국어판과 일본어판을 더불어 참고한 것 같다. 중국어본의 3회의 내용이 민준호 본의 제일 앞부분 쪽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 순서는 일본어판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고, 또 책의 마지막 부분에 중국어본에 없지만 일본어본에

하지만 민준호의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원본 텍스트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단지 ‘역술(譯述)’하였다고만 표기하고 있다. 모리타 시켄의 『십오소년』, 랑치차오의 『십오소호걸』, 민준호의 『십오소호걸』은 모두 번역작품이라 부를 수 있지만, 모두 번역당시 한중일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번역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여기에서 역술은 만청 시기에 번역과정에서 직역을 하지 않는 특수한 번역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바, 만청시기 번역소설에서 원전 텍스트를 번역하면서 자의적으로 다시 고쳐쓰기를 하는 다양한 상황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 역술은 원전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참조하여 역자의 주관적인 성분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바로 랑치차오는 역술과 다시 쓰기의 경계에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랑치차오의 『십오소호걸』도 모리타 시켄의 “원문과 터럭만큼의 잘못도 없는 것을 자신한다(惟自信於原文無毫釐之誤)”<sup>15)</sup>고 단언하였지만, 중국 전통의 장회소설체의 형식에 얽매어서 그 번역을 당대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방식과 문체로 ‘다시 고쳐쓰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전통적인 강창문학에서 발생되고 이야기꾼의 대본인 송대 화본소설을 거쳐 발전된 명청대 장회소설의 특징을 분명히 운용하면서 이야기꾼(說話人)과 가상적인 청중을 설정하고 있는 바, 전체 18회의 모든 부분에서 설서장면을 모방하고 있다. 첫째, 청자를 설정해서 말하는 이야기꾼의 상투어인 ‘看官(여러분)’, ‘却說’, ‘話說’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30회의 절 베른의 원본과 15회의 모리타 시켄의 일본의 번역본에서 각 회의 내용을 간단한 몇 개의 구절로 요약하는 방법<sup>16)</sup>과 달리 화본소설의 개장시처럼 각 회의 첫머리에 그 회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제목이 있고, 셋째, 산장시처럼 각 회의 마지막 부분 앞에 그 회의 내용을 7언 2구나 4언 4구 혹은 4언 7언 4언 7언의 4구의 운문시가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회의 전개될 이야기의 궁금증을 유도하는 ‘후에 일을 알고 싶으면 다음 회를 들어 보시라(欲知後事如何, 且聽下回分解)’와 같은 상투적인 언급 등이 있고, 넷째, 18회 번역의 끝에 10회부터 번역을 한 뤼푸(羅普)가 7언 16구의 장편고시로써 소설을 총결하는 것처럼 철저히 중국전통의 장회소설의 형식으로 ‘다시 쓰기’를 시도하

있는 내용으로 종결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민준호 판은 중국어본과 일본어본을 동시에 번갈아보면서 새로운 근대적 소설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5) 랑치차오, 『십오소호걸』, 『新民叢報』第2號, p.100.

16) 모리타 시켄의 번역본 제1회의 표제에는 “폭풍우, 태평양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 단지 아이들만, 육지의 환영, 뱃머리의 아우성(大あらし、太平洋心の一孤舟、只だ是等の童子のみ、陸影、船首の叫聲)”으로, 제2회에는 “뉴질랜드의 어느 학교, 여름휴가, 14명의 학생, 밧줄 풀림의 전야, 표류, 모리부리 위.(ニューージーランドの一覺舎、暑中休暇、十四名の生徒、解纜の前夜、漂蕩、沙嘴の上)”라고 몇 개의 단어나 구절로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다. 민준호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회 구분없는 소설체제를 이루고 있다.

고 있다. 모리타 시켄의 일본 번역본을 한마디로 중국 전통문화의 형식에 맞추어 버리고 있다. 특히 제1회에서 제4회까지 량치차오가 번역에 대한 목적과 의도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에 부기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제1회의 예를 들어 자세히 분석해보자.

제1회의 제목은 ‘망망한 대지 위에 외로운 배 한 척, 출렁출렁 성난 파도 속에 아이들 몇 명(茫茫大地上一葉孤舟, 滾滾怒濤中幾個童子)’이라 명명하여 바다 속에 표류하는 아이들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바로 그 다음에 화본소설의 개장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摸魚兒」라는 사패(詞牌)에 의지하여 짓는다는 의미의 「調寄摸魚兒」를 의도적으로 창작하여 소설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번역의 의도를 중국의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摸魚兒」의 사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 말해보시길. 이 사(詞) 한 편이 무슨 전고를 얘기하는지를.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42년전, 바로 서기 1860년 3월 9일에…(看官, 你道這首詞講的是什麼典故呢. 話說距今四十二年前, 正是西曆一千八百六十年三月初九日…)”라고 설화인이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십오소년표류기』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개장시 역할을 하는 「調寄摸魚兒」를 소개해 본다.

망망 대해에 거친 파도 몰아치고 사나운 비가 날리는데, 찢어진 돛을 달고 배 한 척이 건너가네.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사람 열 다섯, 모두들 온통 어린 아이들 뿐이라네. 살 곳을 만났으나, 다시 하늘 끝에 홀로 있는 무인도에 떨어져서 돌아갈 길이 없도다. 쓰라린 고통에 우두커니 멈추었지만, 단지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베고 털어내면서, 우리를 이 년 동안 살아가게 하였도다.

사회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는 영웅의 일이니, 어찌 하늘님이 시샘할까, 식민지를 건설하여 새로운 땅을 열었도다. 밝게 빛나는 국기를 남극에 휘날리니, 공화 제도가 좋다네. 하늘이 저버리지 않으니, 말에 뿔이 나고 까마귀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듯이 용케 모두들 살아남아 함께 즐겁게 돌아가도다. 나는 헛되게 말을 하지 않으니, 나이가 어린 동포에게 권하노니, 닭울음 소리를 듣고 칼을 휘두르듯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분발하자구나, 부디 이 생애를 그르치지 말지어라.

#### 調寄摸魚兒

莽重洋驚濤橫雨, 一葉破帆飄渡. 入死出生人十五, 都是髫齡乳稚. 逢生處, 更墮向天涯絕島無歸路. 停辛竚苦, 但抖擻精神, 斬除荊棘, 容我兩年住.

英雄業, 豈有天公能妒, 殖民儼闢新土. 赫赫國旗輝南極, 好個共和制度. 天不負, 看馬角烏頭奏凱同歸去. 我非妄語, 勸年少同胞, 聽雞起舞, 休把此生誤. 17)

17) 량치차오, 『십오소호걸』, 『新民叢報』 第2號, p.93. 신민총보에서는 문장기호에 구두점만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모어아」를 참고하여 문장기호를 다시 적었음.

량치차오가 “천하의 가운데 서서 멈춰 있는 일이란 없으니 용맹하게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퇴보한다. 사람의 생명은 우환과 같이 오니 어려움을 두려워하면 위험에 빠진다.…(중략)…서구민족이 중국보다 우월한 까닭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정신이 아주 풍부하다는 점이 대체로 가장 중요할 것이다.”<sup>18)</sup>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 상황에서 『십오소호걸』의 15명 어린 소년처럼 용맹하게 정진하지 않으면 퇴보할 것이고,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면 영웅의 대업처럼 금의환향 새롭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일은 중국의 사회와 다른 서구의 사회제도, 즉 공화제도에 기인한 일이니, 미래의 꿈을 안고 있는 중국의 젊은 소년에게 일생을 가르치지 않도록 시련을 견디고 힘써 노력해서 국가에 충성하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15소년의 서구의 소년처럼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자유로운 정신으로 탈바꿈해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한 소년들의 등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이 바로 량치차오가 『십오소년표류기』를 번역한 의도이자 정치적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량치차오는 번역의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원문이나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 번역본에 없는 문장, 즉 1회에 “그때 이 배는 정말 자유의 권리라곤 없는 노예가 되었다.(那時這船可不成了個沒有自由權的奴隸.)”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였고 어휘상에도 “Boy, 莫科莫科, My Boy”처럼 Boy<sup>19)</sup>라는 영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자유, 권리, 법률, 총통 등의 근대적 가치가 있는 어휘를 특히 강조하여 낯설게 하였다. 이처럼 량치차오는 『십오소년표류기』를 서구소설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국민들에게 사상계몽적 차원에서 번역한 바, 민족멸망의 위기에 처한 중국국민에게 위기를 돌파할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자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단결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가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량치차오의 중국어 번역 제2회, 민준호의 회를 나누지 않은 한국어 번역 17쪽,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 번역 제1회에 나오는 한 장면을 들어보자.

무안은 아돈과 여러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 오히려 우리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붙어 있어서 위급함을 늦추거나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상호 떨어진다면, 이는 멸망하는 이치이다.” 두번은 이 말을 듣고 무안이 일부러 그를 비웃는다고 여기고 갑자기 흥분해서 말했다. “무안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감히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들을 따르게 하느냐?” 무안이 말하길, “아니다. 무슨 권리

18) 량치차오, 「論進取冒險」, 『신민총보』 제5호, 1902.04.08., “天下無中立之事, 不猛進, 斯倒退矣. 人生與憂患俱來, 苟畏難、斯落險矣. …… 歐洲民族所以優強於中國者, 原因非一, 而其富於進取冒險之精神, 殆其尤要者也.”

19) 민준호 한국어 번역본에도 ‘뽀이’라고 하면서 ‘부리는 ㅎ히’라고 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다만 여러 사람들이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떨어지면 안된다는 것이야.” 그 중에 가장 심려 깊은 아돈이 또 이어서 말했다. “무안의 말이 옳다.” 그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따르면서 그렇지, 그렇지라고 동의하였다. 武安向俄敦及衆孩子道. 今日尙是我輩至危極險之時. 大家同在一處. 緩急或可相救. 若彼此分離. 是滅亡之道也. 杜番聽見這話. 以爲武安有意譏誚他. 便勃然道. 武安你有甚麼權利. 敢制定法律. 令我們遵行嗎. 武安道. 豈敢豈敢講甚麼權利不權利呢. 但大家欲保安全. 這却離開不得呵. 就中最老成的俄敦. 亦接着說道. 武安的話不錯呀. 其餘一班孩子都附和道. 是是

무안이아돈과여러〇희를향하야하느말이

[무]오날도오히려우리들의지극히위험한씨니모다꺾치한곳에모혀원급을가히서로구할 것이오만일피츠분리한즉이는곳멸망할장본이니라

두번이그말을드른즉자기를빚더늑코하느말꺾흔지라얼골이빨리지며

[두]너는무슨권리잇서남더러이리해라더리해라하느그것참제—

[무]권리가무슨권리야여러시서로해여지면위험하다하느말이지

그중제가장로성흔아돈이썰々우스며

[아]그러너무급하게할것이아니야무안의말이그러할듯하군

아돈의말이썩쩌러지며전일에무안을신뢰하던어린〇해서히일시에것츨치여

그럿치々々々

무안이 오돈과 여러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모두 같은 곳에 있음으로써 위급함을 낮추어서 상호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을 상황하게 타이르며 「만약 서로 떨어지면 이것은 멸망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곧바로 그것에 대해 이 말을 들은 두 번은 소리치면서 「너는 감히 우리들 위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가.」 무안은 「어쨌든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 다만 공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서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야.」 항상 심려 깊은 오돈은 그말에 맞추어서 「무안의 말이 옳도다.」 이전부터 무안을 신뢰하던 두 세명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그렇지.」라고 호응했다.

武安は吳敦及び諸童子に向ひて、今に及びても尚ほ、一同一處に在りて以つて、緩急相救ふことの必要なるを、諄々として諭しをり、「若し互に相離れば、是れ即ち亡滅の道なり」といへり. 方さにこゝに來りて、此の語を聞きし杜番は、叫びたり「君は敢て余等の上に、法律を制定し、施行するの權利あると謂ふか」. 武安「何ぞ此の如き權利ありと謂はむ、唯だ共同の安全を保つがために、余輩は互に相離るべからずと謂へるのみ」. 常に深慮ある吳敦は之に和して「武安の説是なり」. かねて武安を信賴する幼年の二三子は「然り、然り」と應呼せり.

여기에서 량치차오, 민준호, 모리타 시켄의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한중일 세 개의 번역문을 언급한 이상, 각국에서 언문일치체의 완성에 큰 역할을 하였던 근대적 문장부호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 동아시아에서 한중일은 한자 문화권의 자장 아래에서 전통적으로 문장에 부호를 쓰지 않았다. 전통적인 문장을 읽을 때에 표점하는 능력을 학문적 지식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다. 량치차오의 『십오소호결』 번역문은 구두점, 특히 고리점(·)인 구점만 있어서 표점만 강조하는 문언문의 전통적인 문장체계를 보이고 있다.<sup>20)</sup> 민준호의 『십오소호결』을 보면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sup>21)</sup> 마침표도 없지만 문장과 문단을 초보적으로 나누고 있고, 일본에서 유래된 몇 가지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물음표, 느낌표가 없는 일본어와 같이 물음표, 느낌표는 없지만 병렬적으로 나열할 때 쓰이는 、 반복부호인 첩자표(오도리지) 々와 々, 인물의 대사에서 인물의 앞의 이름을 약칭으로 해서 [ ] 안에 넣어서 대사를 표시하는 방식 등이 시범적으로 보이는 바, 전통적인 문장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흐름이 포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 번역문은 현재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용법에 따른 문장부호, 즉 우리나라 마침표에 해당되는 구점(·), 우리나라 쉼표에 해당되는 두점(、), 반복부호(々), 우리나라

20) 서구언어에서 사용하는 표점부호를 중국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양무운동시기 청나라가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동문관(同文館)의 영어반 학생인 장덕이(張德彝)이다. 그는 1868년 중국사절단의 일원으로 구미를 방문하였다가 적은 『구미환유기(歐美環遊記)』에서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큰따옴표, 괄호, 콜론, 세미콜론 등 서양식 표점부호를 소개하였다. 장덕이는 이러한 표점부호가 자질구레하고 번잡하다고 생각하여 의식적으로 중국에서 표점부호 사용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1904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嚴復은 『英文漢話』란 책에서 처음으로 신식표점부호를 사용하였고, 문언문에 반대하고 백화문을 서면어로 삼자고 제창하는 신문화운동시기인 1915년 호적이 「論句讀及文字符號」의 글을 적어 표점부호를 실제로 제정하였다. 또 1917년 劉半農은 「我之文字改良觀」을 발표하여 문장에 신식표점부호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신문화운동의 대변자인 신청년 잡지에서는 창간 이후로 줄곧 신식표점부호를 사용하였다. 1919년 胡適, 周作人, 錢玄同, 馬裕藻, 朱希祖, 劉復 북경대학 6명의 교수들이 문법의 구별과 가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 “，，；；：：？！—（）《》” 등의 표점부호 사용을 공포해줄 것을 정식 요청하였다. 1920년 북양정부 교육부에서는 『通令採用新式標點符號文』을 공포하여 중국 최초로 법정 신식표점부호가 탄생되었다. 신식표점부호는 근대 백화문의 보급과 근대 국어로서 문자와 문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标点符号来历: 1919年北大六教授提『請頒行新式标点符号议案』」, <https://www.visitbeijing.com.cn/article/47QrXpdyT4s> [2022.10.15.]참조

21) 한국에서 띄어쓰기는 1896년 최초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에서 도입되었으나 크게 보급되지 못하였다. 1908년 최남선이 일본에서 출판용 기계를 도입하여 설립한 신문관이라는 출판사에서 1908년 창간한 근대적 종합잡지인 『소년』과 1914년 창간한 『청춘』에 띄어쓰기가 부분적으로 보이고, 또 고리점(·), 낫표(「」) 등이 보인다. 1919년에 창간한 한국 최초의 종합문에 동인지인 『창조』에 이르러서 느낌표와 물음표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1910년대 말에 이르러 띄어쓰기와 문장부호에 의식적인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이상춘(李常春)이 1925년에 지은 『조선어문법』에 이르러서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등 문장부호 13개를 처음으로 열거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1920년대에 창간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고,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이 공포되어 띄어쓰기의 원칙과 문장부호 17개가 규정되었다.



라 따옴표처럼 회화문에 사용하는 나타내는 카키캣고인 홑낫표(「」) 등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리타 시켄이 번역할 당시 서구어에서 유래된 문장부호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근대 국어로서 일본어의 형식적 특징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다시 위의 인용문으로 돌아가보자. 량치차오는 제2회의 번역후기에서 제1회와 제2회의 이야기 핵심을 요약하면서 “이 두 회의 오로지 무안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가 한 말 중에 ‘오늘 오히려 우리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붙어 있어서 위급함을 늦추거나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상호떨어진다면, 이는 멸망하는 이치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중국 동포가 마땅히 매일 세 번씩 반복해야 할 것이다.”<sup>23)</sup>고 하였다. 그 당시 중국의 위기상황에서 량치차오는 중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암울한 현실과 맞부딪치면서 생존을 도모해나가는 ‘15소년’처럼 진취적인 정신으로 대동단결하여 민족위기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개척하자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 인용문에서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감히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들을 따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두번의 대사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공화제의 법률 제정, 권리 등의 근대적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는 일본어 번역본에서 “너는 감히 우리들 위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가.”(君は敢て余等の上に、法律を制定し、施行するの權利あると謂ふか)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바, 법률 제정, 권리라든가 글자적인 의미를 중국적 상황에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이와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의 하나로, 소년들이 표류한 무인도에서 생활을 총괄할 책임자를 뽑을 때,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본 6회와 9회에서는 그 책임자를 ‘태수’라고 명명하였고, 민준호 본에서는 ‘두령’이라고 한 반면에, 량치차오 본 9회와 12회에서는 근대적인 용어인 ‘총통’으로 번역하여 선거를 실시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량

22) 일본에서는 1880년대부터 伊藤圭介의 「日本人/雜俗文章=於ケル句讀段落ノ標示スルヲ以テ必要トセサルハ一欠事タルヲ弁ス」(1881), 山田美妙의 「新體詞選」(1886)과 權田直助의 「國文句讀法」(1887) 등을 필두로 문장의 모호함을 피하고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서구문장에서 유래된 문장부호를 참조하여 문장부호를 제정하거나 의식적으로 도입을 강력 주장하였고, 그 후에 일본 연문일치체 소설의 선구자인 후바타테이 시메이의 「부운」에서 문장부호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널리 보급되었다. 김병철,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 을유문화사, 1980, pp.76-95. 참조.

23) “此兩回專表武安, 就中所言「今日尙是我輩至危極險之時, 大家同在一處, 緩急或可相救. 若彼此分離, 是滅亡之道也.」我同胞當每日三復斯言.” 이 다음의 서술에는 경쟁이 있으면 진화가 있으며, 무안과 두번이 싸우는 것은 세계의 여러 정당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공화제를 찬양하고 있다. 량치차오, 『십오소호걸』, 『新民叢報』 第3號, p.96.

24) 시에구사 도시카쓰의 「쥘 베른(Jules Verne)의 『십오소호걸』의 번역 계보-문화의 수용과 변용」(사이間SAI·제4호)에서는 원문과 대조하여 법률 등과는 아무 관련 없는 관용적인 말이라고 하고 있다. pp.56-57. 참조

치차오의 신민 만들기를 통한 공화제의 실현을 하려는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인용문 그 대사의 실제적인 의미는 ‘너가 네 맘대로 정하고 실행할 권리가 있느냐?’는 일상적이고 관용적인 뜻이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너는 무슨 권 리 잇서 남더러 이리해라 더리해라 ㅎ니 그것 참제—”라고 그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고 있다. 한국어 번역본에서 중국과 일본본과 다르게 유일하게 대사의 맥락에 따라 관용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럼 민준호의 한국어 번역본은 무엇을 참조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량치차오의 『십오소호걸』에 의거하고 있으나, 일본어 번역본도 같이 동등하게 참조하고 있음을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량치차오의 번역본에 안 나오지만, 모리타 시켄의 번역본에 나오는 글이 수록되어 있는 바, “전일에 무안을 신뢰하던 어린 ㅎ해 서히”가 바로 일본어 번역본에서 나오는 구절이고 중국어 번역본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구절이다. 또 량치차오 번역본은 회의 구분상 일본어 번역본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모리타 시켄본의 제2회는 오클랜드 체어먼 학교를 소개하면서 방학 때 뉴질랜드 일주를 나가게 된 동기와 학생들을 소개하고, 바다에 처음 표류하여 무인도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쥘 베른 원작의 3, 4회에 해당된다. 하지만 량치차오의 번역본은 모리타 시켄의 제 1회, 2회의 이야기를 제1회와 제2회에 나누어서 분절하고 있으며, 모리타 시켄의 제2회 초반의 오클랜드 체어먼 학교 소개와 소년들이 표류하게 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는 량치차오 제3회에서 독립시켜 다루고 있다. 그 나머지는 대략 모리타 시켄본의 순서대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민준호 한국어 번역본은 회구분은 없지만 모리타 시켄의 회 구분의 시간적 순서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위의 인용문만 보면 모리타 시켄본을 축약하여 번역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량치차오 번역본만 참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 즉 중국어 번역본에 안 나오는 구절 등이 민준호 번역에서는 나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어 본에서 『십오소년표류기』의 주제를 한 마디로 요약해서 서술한 마지막 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그아돈의신려(愼慮)무안의자이(慈愛)와두번의무룡(武勇)이며그중인의인너강의(忍耐 剛毅)흙은진실로경이치아니ㅎ리업스며또가치란은두번과일디가우(一對佳藕)를이루니또 한세상에드문괴연이오이범은여러ㅎ희의부모가각기의연을ㅎ야비한척을사쥬고늑서류에 서여러ㅎ희와이웃을살게ㅎ더라

우리들이 제군과 함께 이 십오소년의 표류담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즉 신려, 자애, 용감의 세 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또 더해서 인내심과 강건함의 덕까지도 갖추다

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분란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余輩が諸君と共に、斯の十五少年の漂流譚を讀みて、學び得る所の訓へは即ち、愼慮慈愛勇武の三者有りて、之に兼ねるに耐忍剛毅の徳を以てすれば、人生何の難か排すべからざらむ、何の紛が解くべからざらむ、といふなり。

민준호의 마지막 구절 “이 배는 여러 아이들의 부모가 각각 의연금을 출연하여 배 한 척을 사주고 오클랜드에서 여러 아이와 이웃들이 더불어 살게 하였다(이 배는 여러 〇희의 부모가 각기 의연을 〇야 비 한 척을 사주고 뉴욕에서 여러 〇희와 이웃을 살게 〇더라)”라는 구절도 중국어 번역본에는 없다. 이 마지막 구절은 모리타 시켄의 마지막 장면 앞의 부분을 간단하게 한국적 상황에 맞춰 축약해서 서술한 것이다. 위의 한국어본 일본어본 인용문도 중국어 번역본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중국어 번역본은 위의 인용문에서 나오는 신려, 자애, 용감(勇武), 인내, 강毅(剛毅)와 같은 중국의 전통적인 단어에는 별 흥미를 못 느끼고 번역하지 않았다. 『십오소호걸』을 번역할 당시의 중국의 위기상황에서 서구의 새로운 근대적 단어와 이야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준호 본은 중국어 본만을 참조해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 본과 함께 보면서 그걸 종합해서 번역자 스스로 새로운 소설을 창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한글로 민준호 본의 번역된 문체에서는 ‘-나다’, ‘-하다’ ‘-다’ 식의 종결형 어미가 보이지만, 대부분 고전 소설과 그 당시 신소설에 많이 사용되던 ‘-지라’, ‘-이라’, ‘-러라’, ‘-더라’, ‘-리오’, ‘-노라’ 등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또 한문투의 ‘-흔즉’ 등의 연결형 어미 사용을 통해 문장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는 바, 독자의 읽기 중심을 소설 특징으로 하는 근대적 요소보다 중국소설의 영향을 받아 이야기꾼이 구연하는 특징을 가진 고전소설과 신소설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호의 번역본은 한자 단어에 한글 조사만 덧붙여서 사용하던 기존에 한문체 문장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근대 국어의 탄생을 위한 한글 문체 만들기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국어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이 어느 정도 동반되어 있어서 언문일치체의 국어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량치차오의 『십오소호걸』의 번역문체는 그가 4회의 번역주에서 “본서는 원래 수호전, 홍루몽 등의 책의 체제에 의거하여 순수하게 속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번역을 할 때 심히 어려운 점이 있었기에 참고로 문언을 사용하여 노력은 절반을 투입하였지만 그야말로 성과는 그 두 배가 되었다.”<sup>25)</sup>고 고백한 바, 『십오소호걸』은 반

25) “本書原擬依水滸紅樓等書體裁，純用俗語，但翻譯之時，甚爲困難，參用文言，勞半功倍。”『신민총보』 제6호, p.83.

문반백의 문체를 사용하여 번역을 하였다. 그 당시 지식인이 일상적인 백화의 속어를 사용하여 글을 짓는다는 정말 어렵고 문언문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쉽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이는 량치차오가 백화속화를 사용하는 문체의 개혁에 방점이 있었기 보다는 민족위기의 절대절명의 상태에서 중국민을 계몽시키고자 하는 번역의도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따라서 량치차오를 이어서 10회부터 18회를 번역한 피발생(披髮生)도 량치차오의 의도대로 모험 이야기와 계몽의 차원에서 번역을 하였다. 일본어 번역본에 없는 18회의 마지막 장면을 한 번 살펴보자.

곧바로 파사타(백스터)가 매일 정성을 다해서 적은 일기가 출판되어 나왔다. 초판은 5천부를 찍었는데, 이삼일도 지나기 전에 모두 팔렸다. 재판을 오천부를 발행했는데, 또 눈감작할 사이에 깔끔하게 다 팔렸다. 이 때문에 판권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이 「십오소호걸」의 번역본이 있지 않는 곳이 없었다. 단지 동양의 유일한 대제국 중국에서는 여태껏 그 책을 번역하지 못하였다. 후에 『신민총보』가 발간되고 사주 량치차오가 이 책이 본국의 학생의 의기와 지식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번역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십오소호걸』이 중국에 유입된 원인과 결과이다. (因此索性把巴士他每日留心筆記的日記刻了出來. 初次刻了五千部. 不上三兩日都賣完了. 再刊了五千部. 也是轉眼就都賣得乾乾淨淨. 因此棄了板權. 任人隨意翻刻. 自此各國莫不有了這本十五小豪傑的譯本. 只是東洋有一老大帝國. 從來還沒有把他那本書譯出來. 後來到新民叢報發刊. 社主見這本書可以開發本國學生的志趣智識. 因此也就把他從頭譯出. 這就是十五小豪傑這部書流入中國的因果了.)

동해의 구슬은 어린 정위에게 돌아가고, 곤산의 옥은 어린 봉황을 부르네. 사람이 태어나 이와 같은 일을 겪는 것이 어찌면 복이 아닐지? 사람과 대자연이 한바탕 싸워 승리함을 노래하네. 동해에 한 아이는 등이 곱사등이고 서쪽 이웃의 아이는 어린아이보다 못하네. 눈은 우물 속 개구리 같아 바다를 말할 수 없고, 몸은 마치 두어같이 헛되이 순국의 맹세 글을 썼지. 느릿느릿 불어오는 남풍은 하늘이 교만하지 않음이고, 젊음이 낙심하면 나라의 혼도 없어지거늘. 어찌 약하게 출렁이는 바닷물이 전세계 만물이 다뤄 조수같이 밀려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리! 황도에서의 표류함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는데, 우리 땅의 옛 연못과 누대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네. 책 속 종이 장에 풍운의 기운이 가득한데, 펼쳐 일어나 춤출 남아대장부가 있을지?

東海珠還小精衛 崑山玉叫雛鳳皇 人生經此甯非福 凱奏人天戰一場 東鄰有兒背僂 西鄰有兒不勝 雛眼同井蛙 巨語海身似蠹魚 空殉書靡靡 南風天不驕 少年心死 國魂銷何堪 弱海輕盈水 卻當全球物 兢潮海島飄蓬 不自哀 傷心吾土舊池臺 蓬蓬紙上風雲氣 可有男兒起舞來.

위의 인용문은 백화로 작성하여 출판의 연유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랑치차오가 말한 번역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또 산장시 역할을 하는 문언의 7언고시를 삽입하여 중국에서 십오소호걸의 현재적 가치를 총결하고 있다. 이 인용문의 내용은 일본어 판이나 원전에는 표류할 때 적은 일기가 히트쳐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었다는 간단한 내용만을 가지고 중국어 번역자가 창작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어 번역자 민준호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어 번역본의 역술 겸 발행자로 기록된 민준호(閔濬鎬, 1877-1937)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 본 연구자가 여흥 민씨 족보와 인터넷 검색 등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것에 의하면, 민준호는 여흥 민씨 27대손으로 1877년 서울에서 민치헌(閔致憲)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자(字)는 순명(舜明)이고 호(號)는 소송(小松)이다. 친동생으로 임시정부 외교부 의사국장 및 중국혁명군 정치부 선전처 과장 등을 지낸 민제호(閔濟鎬)와 동화산업회사, 공업진흥회사, 대동화재보험회사 등의 사장을 지낸 민용호(閔溶鎬)와 휘문의숙을 졸업하고 중국 교통부전신학교를 졸업하고 임시정부 외무부 차장과 주대만총영사를 역임한 민필호(閔弼鎬)가 있다. 민준호의 형제들을 보듯이 그의 집안은 전통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자세로 애국사상을 지녔고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었던 것 같다. 민준호는 1893년 계사년(癸巳年)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1900년 경자년(庚子年)에 법부주사(法部主事)를 거쳐 시종원시종(侍從院侍從)을 지냈다.

민준호는 1900년대 초 연동교회에 입신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 1907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기독교학생연맹 세계대회에 황성기독교청년회 부회장 윤치호 등 7명의 대표와 함께 참여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한 기독교운동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다. 여흥 민씨의 재력가로 1909년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일명 양반교회라 불리는 안동교회 설립 때 거액을 헌금해 재정적인 기초를 놓았으며 안동교회 당회장을 지냈고, YMCA 창립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한다. 그는 기독교 사상에는 식민지화 되는 현실에서 애국사상도 함께 녹여져 있었던 것 같다. 한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1909년 5월 7일자 統監府文書 9권에 실려있는 警視總監機密報告인 「베델의 사망 후 『大韓每日申報』 운영에 대한 정보 등 보고」에서 어제 5월 6일 민준호와 사촌형인 閔商鎬, 梁起鐸 외 10명이 鍾路青年會館에 집합하여 故 베델 동상을 鍾路 부근에 건설하고자 협의하고, 우선 출석자 중에서 大韓每日申報社 1,500圓, 閔濬鎬 100圓, 閔商鎬 100圓, 기타 인물은 20圓씩 기부금을 각출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배설(裴說)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영국인 베델은 1904년 양기탁과 함께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창간하였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출판물은 사전검열하여 일본에 저항하는 출판물들을 출판되지 못하게 하였지만, 영국인 베델의 명의로 발행한 『대한매일신보』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대한매일신

보』는 한일합방까지 항일적 색채를 계속 유지한 유일한 신문이었다. 따라서 통감부의 일본인들은 베텔의 추방시키기 위해 영국 공사를 통해 갖가지 압력을 가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베텔은 1909년 5월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위의 경시총감 기밀보고서는 바로 이런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민준호는 식민지화 되는 조선의 현실을 걱정하고 타개하기 위해 자신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민준호는 또한 기업설립에 적극적이어서 1910년대 초반 최남선의 출판사인 신문관과 더불어 쌍벽을 겨루는 출판사인 동양서원을 설립하여 『신약주석』 등 기독교 문서출판과 신소설 총서, 서구번역소설 등을 주로 발행하였다. 최남선의 신문관이 1908년부터 1918년까지 10년 동안 발행한 번역소설이 7권인데 반해서 민준호의 동양서원에서 1912년 1월부터 1913년 4월까지 6권의 서구 번역소설을 출판하였다.<sup>26)</sup> 이 때 동양서원에서 번역된 소설 중의 하나가 『십오소호걸』이다. 1910년대는 한국의 문화계에서 출판사 동양서원의 시대라고 할 만한데,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에서 개화기 교육의 교육통계에 보면 1910년(明治43년) 10월말일 현재 기준으로 내무부 학무국 학무과 조사에 의해 작성된 「종교학교를 제외하고 경성부내 사립학교 현황(京城府內私立學校現狀一斑(宗教學校ヲ除ク))」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민준호는 외국어 야학을 전문으로 하는 2년제 사립학교인 해동신숙海東新塾(1903)에서 교장을 맡았다는 기록이 보인다.<sup>27)</sup> 이 기록에 유추해볼 때 민준호는 상당히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일본어 문장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며, 『십오소호걸』을 모리타 시켄본을 보고 참조하여 번역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민준호 한국어 번역본은 서구 소설의 번역에 단순히 목적에 있기보다는 번역, 즉 엄밀한 의미에서 역술을 통해 모험에 익숙치 않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야기의 신기함을 제공함으로써 출판사 사장으로서 시장성을 생각하였고, 또 당시 유행하던 애국계몽류의 개화기 신소설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의 참신함과 문장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좀 더 근대화된 새로운 소설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개입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번역본 앞부분에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의 묘사가 뛰어난 창작글이 있다. 민준호가 창작한 글을 간단히 보자. ‘동소문 밖 성북동 금잔디 위(동소문 밖 성북동 금잔디 우에)’에 좋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다가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사면으로 모여들고 맹렬한 비바람이 치고, 번개불이 왔다갔다 하면서 탐해등같이 태평양

26) 반거들충이 한 무릎공부(박진영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ookgram&logNo=120147912925> [2022.10.20.]

27) 「明治四十三年十月末日現在「京城府內私立學校現狀一斑」(內務部學務局學務課調査)이라는 자료는 渡部學·阿部洋 編,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제67권에 나온다.

한가운데를 뻗뻗내리치면서, 영국의 넬슨 장군이 프랑스 함대를 쳐부수고 도망하는 불국 군함을 쫓아가는 구축함처럼 배가 등장한다. 이 창작의 글은 아마 량치차오의 앞부분 사를 모방하여 서술하였을 수도 있고, 민준호가 개화기 신소설 보다 한층 발전된 근대소설을 추구하려는 욕망에서 독자에게 새로운 소설과 같은 느낌을 제공하려고 했던 의도일 수 있다. 이 창작글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번역이 시작되는 바, 그 배 위에는 얼굴이 희고 나이가 열 너댓살 쯤 된 학생 세 명과 살빛이 검은 열 너댓살 쯤 되는 ‘뽀이’라고 하는 ‘부리는 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 뱃머리를 붙들고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일본과 중국의 번역본을 축약해서 자신이 소설을 창작하듯 자연스럽게 번역하고 있다. 이는 역술이라는 번역방법의 불충분함의 한계에서 기인하지만, 반대로 역술에는 시대적 상황과 번역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번역 문장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준호가 번역한 문장은 고전문체와 같은 옛스러움이 있으나 새로운 한글문장을 추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인해 문학성있게 간결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고, 인물간의 대화를 잘 활용하면서 분명하게 한국사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국적인 모험 이야기의 서사를 전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량치차오의 『십오소호걸』에서는 이야기꾼으로 설정된 서술자가 이야기의 내용과 문장의 형식에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사에까지 개입하여 부단히 이야기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다. 소설의 서술자가 량치차오인 것처럼, 량치차오 자신의 주관적인 의도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편집자적인 논평의 서술방식을 사용하여, 중국 독자에게 직접 소통하려는 번역의 의도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공화제로 상징되는 새로운 백성 만들기라는 량치차오 신민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에 반해 모리타 시켄의 『십오소년』의 서술자는 근대소설처럼 서술자가 관찰자의 위치에서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로서 발생하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바, 논평과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근대소설에 한층 접근한 방법이다. 한편 민준호의 『십오소호걸』의 서술방식은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서술하지만, 신소설적인 문체로 인해 독자에게 구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일상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담화적 언어, 즉 구어체를 사용하여 인물간의 생동하는 대화를 구성하여 언문일치체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 4. 나오면서: 근대적 문체의 문제

『십오소년표류기』를 최초로 동아시아에 소개하였던 모리타 시켄은 타언어간의 넘을 수 없는 언어문화적 차이를 이 작품의 번역을 통해서 어떻게 뛰어 넘을까를 고민하였다. 그 당시 일본 지식인에게 익숙했던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한문체와 화한혼호체 즉 문법과 어휘가 모두 중국의 전적을 모범으로 삼는 문장, 일본어 문법의 구조 하에서 일본전통의 어휘와 중국 전적 중의 한자 어휘를 혼합하여 사용한 문장 등과 같은 문체의 벽을 뛰어넘어 일상현실에서 살아있는 구어체의 어휘를 선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출발어의 영어 원문 텍스트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방식을 가지고 전통적인 문장과 낯설게 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여 새로운 일본의 문장을 희망하였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근대국가로서의 일본어 언문일치체의 문장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민준호도 량치차오의 중국어 번역본과 모리타 시켄의 일본어 번역본을 교차 참조하여, 전통적인 문장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다소 생소함을 주는 문체로 번역하려고 나름대로 고심한 것 같다. 모험 이야기의 새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생동하는 구어체식의 대사를 많이 활용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문체는 고전소설과 신소설체의 한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다. 이는 구시대의 문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체로 나아가는 도전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량치차오의 『십오소호결』은 중국인을 각성시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계몽과 유신을 위한 ‘신민’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정치적 목적에 우선하였기 때문에, 번역소설에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부단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독자에게 전통적으로 거부감이 없었던 장회소설의 형식을 사용하여 번역하였고, 번역이 힘들어서 자신에게 쉬운 문언 사용을 꺼리지 않고 번역을 하는 등, 번역을 통한 중국어 문체의 창조에는 등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울분과 감정이 넘치는 량치차오의 글쓰기를 ‘신민체’, ‘신문체’라고 평가하였지만, 엄격한 차원에서 문언중심의 전통적인 글쓰기의 벽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오직 새로운 어휘 차원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대국가로서의 국어로의 성장, 즉 언문일치체의 완성은 5·4시기로 미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新民叢報』

모리타 시켄(森田思軒), 『十五少年』, 博文館, 1896.

閔濬鎬, 『冒險小説 十五小豪傑』, 東洋書院, 1912.

쥘 베른, 김석희 옮김, 『십오소년표류기』(1·2권), 열림원, 2003.

Jules Verne, *Deux ans de vacances*, Paris: CLE International, 1997.

김병철 지,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 을유문화사, 1980.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2000.

郭延礼, 『中国近代翻譯文学概論』, 湖北教育出版社, 1998.

王向遠, 『翻譯文學導論』,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4.

川戸道昭 等編, 『明治期翻譯文学總合年表』, 大空社, 2001.

王 虹, 「データから見る清末民初と明治の翻譯文学」, 『多元文化』 第7號, 2007.

濱田幸子, 「『伊曾保物語』と江戸時代におけるその受容について」, 『佛教大学大学院紀要, 文学研究科篇』 第38號, 2010. 3.

山田潤治, 「明治20年代の翻譯と日本近代文学の生成」, 『翻譯文学の視計 - 近代日本文化の変容と翻譯』(井上健), 思文閣出版, 2012.

시에구사 도시카쓰, 「쥘 베른(Jules Verne)의 『십오소호걸』의 번역 계보-문화의 수용과 변용」, 『사이間SAI』, 제4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Patrick Hanan, "A Study in Acculturation-The First Novels Translated into Chinese",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CLEAR)*, Vol.23, Dec.2001.

「标点符号来历: 1919年北大六教授提『请颁行新式标点符号议案』」, <https://www.visitbeijing.com.cn/article/47QrXpdyT4s>

만거들충이 한 무릎 공부(박진영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bookgram>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閔濬鎬, 梁啓超, 森田思軒, 十五小豪傑, 十五少年				
Key Words	영문	Min Jun-ho, Liang Qichao, Morita Shiken, <i>Fifteen Boys</i> , <i>Fifteen Little Heroes</i>				
<div>Intertextuality of Korea, China and Japan Translated Literature in the Early Modern Period : Focusing on the translation of Korea, China, and Japan's <i>Two Years' Vacation</i> Lee Si-Hwal</div> <div><p>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hree language versions of French Jules Verne(1828-1905)'s <i>Two Years' Vacation</i>(Deuxans de vacances, 1888) in early Asian modern era, which are Japanese <i>Fifteen Boys</i>(1896) by Morita Shiken, Chinese <i>Fifteen Little Heroes</i>(1902) by Liang Qichao, and Korean <i>Fifteen Little Heroes</i> by Min Jun-ho(1912). In this research, I look at what is pursu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through the translation methods and intentions of translators under the different cultural environment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explores the context and situation in which intervention, subversion, transformation, and distortion occurs. Finally I partially examine the process of changing styles of newly constructed national languages of each country with the identity of modern nation state.</p><p>The Korean version by Min Jun-ho provides the novelty of the story to Korean readers who are not accustomed to adventure stories through translation, rather than simply for the purpose of translating Western novels. Liang Qichao's <i>Fifteen Little Heroes</i> was translated as a form of a serial novel which is familiar with Chinese readers. In this Chinese version, the narrator set as a storyteller is not only involved in the content of the story and the form of the sentences, but also intervenes in the narrative of the novel to constantly interpret and explain the story. This is for Liang Qichao's <i>Fifteen Little Heroes</i> taking precedence over the political purpose of creating a "citizen" for enlightenment and reformation that awakened the Chinese and made them a new people. Morita Shiken hopes for a new Japanese modern language by using defamiliarization as a translation strategy, trying to preserve the language and culture of the English text as a source language. It can be said, after the process, that the Japanese sentences equipped with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in Japan as a nation state has been completed.</p></div>						
저 자	이시활 / 李時活 / Lee Si-Hwal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1.25.	심 사 일	2023.03.04.	게재확정일	2023.03.20.